

# 김해정책 B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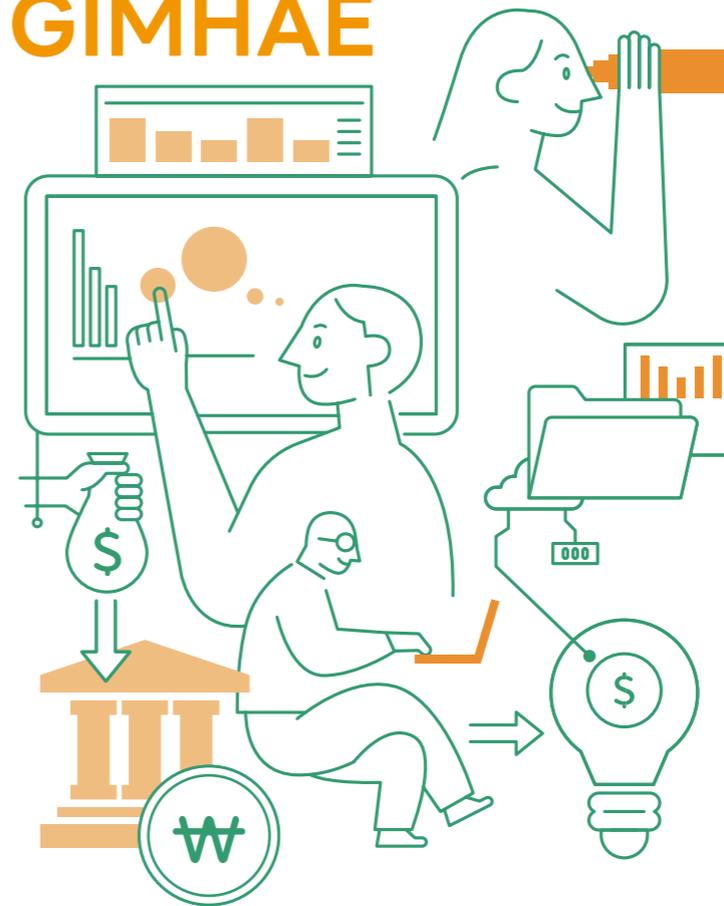
# 김해정책 BRIEF

2025 - 8호  
2025. 12.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강길주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kjkang@ghri.re.kr)

## GIMHAE



- I.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현황
- II. 김해시 창업생태계 진단 및 타지역 사례 시사점
- III.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 과제와 제언

# 요약

## ■ 중앙정부 창업지원 정책과 김해시의 정책 연계성

-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창업지원 정책은 13개 중앙부처와 8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규모와 참여 주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창업지원 정책은 융자·사업화·기술개발(R&D)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등 10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기반 창업 육성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음
- 김해시는 의생명·의료기기,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전략산업 측면에서 중앙정부 창업정책의 방향성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음

##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구조 및 창업생태계 진단

- 김해시는 「김해시 창업지원 조례」와 「김해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통해 창업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공공 주도-전문기관 위탁 방식의 안정적인 정책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중심의 공간·인프라, 기술·사업화, 인력·창업프로그램 등 종합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김해시 창업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지식, 창업인프라, 정책·거버넌스 부문에서 성장·확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 반면, 실증 이후 양산, 대기업 연계로 이어지는 스케일업 인프라, 민간 중심의 금융·투자 생태계, 상시적 네트워크 기반의 창업 문화는 초기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 과제와 제언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은 초기 창업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과 연계된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 체계로 전환이 요구됨
- 특히 의생명·의료기기, 미래자동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실증-양산-대기업 협업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부산(금융·글로벌)과 창원(제조·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 및 시장 접근성을 보완하는 초광역 창업 협력 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 현장 중심의 전문 인재 양성과 상시적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임

# I.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현황

## 1. 중앙정부 정책 현황과 연계성

- 2025년 기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13개 중앙부처와 8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총 101개 기관의 통합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2020년 대비 지원기관은 약 6배, 대상 사업 수는 약 4배, 지원 예산은 약 2배 증가한 규모로, 창업지원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냄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2021년 17개에서 현재 88개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여, 창업지원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 구조에서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이 강화된 다층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냄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참여의 확대는 단순한 개별 사업 수행을 넘어, 정부 정책을 지역 산업과 연결하고 흡수·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전환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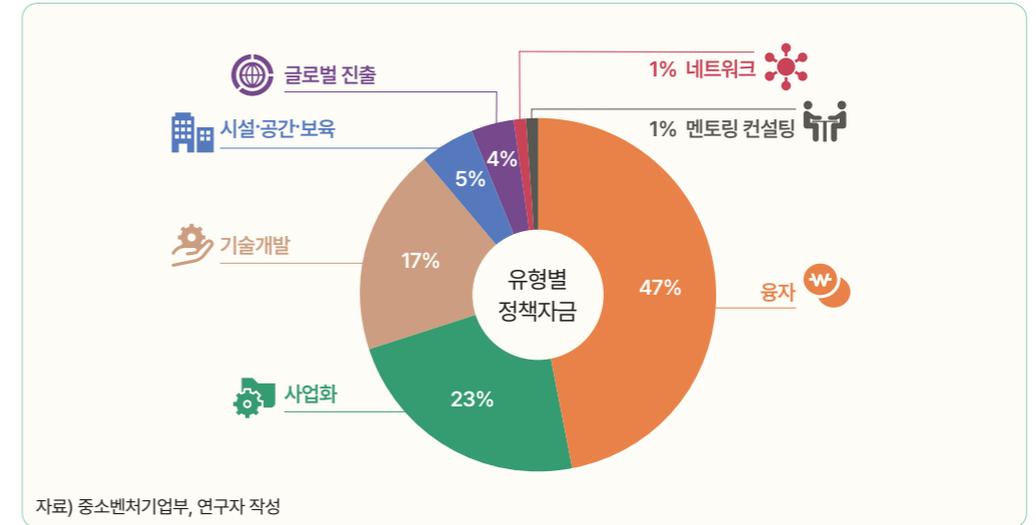
<표 1> 창업지원 사업 연도별 통합공고 현황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지원기관(개)	16	31	94	103	99	101
중앙부처	16	14	14	14	11	13
지방자치단체	-	17	80	89	88	88
대상사업(개)	90	193	378	426	397	429
중앙부처	90	89	100	102	86	87
지방자치단체	-	104	278	324	311	342
지원예산(억원)	14,517	14,623	36,668	36,607	37,121	32,940
중앙부처	14,517	13,812	35,578	35,078	35,621	31,190
지방자치단체	-	811	1,090	1,529	1,500	1,7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지원 정책 사업 유형은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글로벌 진출, 멘토링 컨설팅, 네트워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유형별 예산 비중은 융자 47%(1조 5천억 원), 사업화 지원은 23%(7.6천억 원) 그리고 기술개발과 시설·공간·보육은 각각 17%(6.3천억 원)와 5%(1.5천억 원)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사업 유형은 융자와 사업화 지원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1> 2025년 기준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사업 유형별 정책 자금 비중



- 창업지원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음
  - 대표적으로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669개사(1,310억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으며 '딥테크 밸류업 특화 프로그램'으로 벤처·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 50개사(7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10대 신산업 분야**

- ① 시스템반도체
- ② 바이오·헬스
- ③ 미래 모빌리티
- ④ 친환경·에너지
- ⑤ 로봇
- ⑥ 빅데이터·AI
- ⑦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⑧ 우주항공·해양
- ⑨ 차세대원전
- ⑩ 양자

- 김해시는 지역 전략산업 가운데 의생명,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 산업이 중앙정부의 10대 신산업 정책 방향과 높은 정합성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김해시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창업 분야에서 실증, 사업화, 초기 시장 검증을 담당하는 지역 단위의 실행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을 상시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차원의 창업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역할의 명확화가 요구됨

## 2.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구조와 현황

### 김해시 창업지원 제도 기반

- 김해시는 「김해시 창업지원 조례」와 「김해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통해 창업지원의 기본 방향과 종합적·체계적 지원 원칙, 예산 확보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창업지원 정책을 단발성이 아닌 제도 기반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책의 안정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음
  - 해당 조례는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과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공공 주도-전문기관 위탁형 창업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창업문화 확산,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 연계 등 창업 전주기를 포괄하는 지원 사업을 정책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의 범위와 확장성이 넓음
  - 특히 청년창업 분야에서는 매년 청년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를 의무화하고, 기술·경영·마케팅·투자유치·글로벌 진출까지 포함한 지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김해시 창업지원 조례 현황

구분	주요내용
김해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업문화 확산 및 종합적인 창업지원의 기본 근거 규정</li> <li>시장의 창업지원 시책 수립 및 예산 확보 의무 명시</li> <li>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마련(창업공간, 교육·상담 등)</li> <li>민간위탁 운영 가능 조항 명시: 전문기관 위탁형 운영 구조 제도화</li> <li>시제품 제작, 기술, 경영, 디자인, 마케팅, 고용보조금 등 초기 사업화 중심의 지원 사항 규정</li> </ul>
김해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9세 이하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특화 창업지원 제도 규정</li> <li>매년 청년창업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평가 의무화</li> <li>기술개발, 경영, 마케팅, 컨설팅, 교육,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까지 포함한 전주기 지원을 명시</li> <li>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규정 (시제품 제작, 사업화, 투자·해외진출 지원 등)</li> <li>청년창업지원센터의 공공기관·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거 명확화</li> </ul>

자료)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김해시 창업지원 추진 체계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의 실질적 추진 주체는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맡고 있음
  - 1실 2센터 체계로 운영되며, 의생명센터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및 기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주요 사업으로는 의생명·의료기기 산업 육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연계 기업 육성, 중장년 기술창업 지원, 1인 창조기업 육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이 있음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사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추진 사업의 상당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 정부 공모 사업을 기반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는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이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창업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실행·연결 하는 하위 실행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냄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구조

- 김해시는 공간·인프라,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창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적인 창업지원 정책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예비창업 단계부터 기술 실증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의생명 기반 기술창업을 중점적으로 초기-성장-확장 단계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음

<표 3>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 구조

구분	주요 구성 요소	주요내용
공간·인프라	의생명센터동, 테크노타운동, 메디컬실용화센터동,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특화 분야별 맞춤형 공간 및 연구 인프라 제공
기술·사업화	국비 기반 기술개발·실증·시제품 제작 사업 (비대면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인력·창업프로그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제조·신산업 특화)	창업가 육성 및 교육, 커뮤니티 조성

**창업 초기 단계 정책: 공간-보육-제조기반 초기 사업화 중심**

- 김해시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공간 제공, 보육 프로그램, 제조 기반 지원을 결합한 정책을 추진함
- 단순 교육·컨설팅 중심의 초기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시제품 제작과 초기 사업화가 가능한 실질적 창업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구조임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메이커스페이스를 통해 예비·초기창업자의 사업화 기초역량(시제품 제작, 교육·멘토링, 초기 판로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음
  -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2025년도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24년 기준 매출 46억 원, 신규 고용 21명, 1개사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창출함
  -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2025년도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창업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고, 2024년 기준 매출 53억 원, 신규 고용 24명, 투자유치 8.5억 원의 성과를 달성함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부문에서는 제조·시제품 기반 초기 창업역량 강화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됨
- 이를 통해 김해시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실질적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성장·기술혁신 단계 정책: 지역전략산업 연계 기술 고도화 중심**

- 김해시는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의 집적지이자 강소연구개발특구 배후지라는 점을 반영하여, 기술 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정책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김해형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향후 5년간 50개사 육성을 목표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김해 셋별기업 육성 사업, 소재·부품 기업 대상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성장 단계 기업 군의 기술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의생명 분야에서는 비대면 의료기기,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국비 기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

**스케일업·시장진출 단계 정책: 투자-대기업 협업-수출 기능의 확장 시도**

- 스케일업 단계에서는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과 외형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 대기업 협업, 수출 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선도기업 연계 오픈이노베이션(OI)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과 중견, 대기업 간 협업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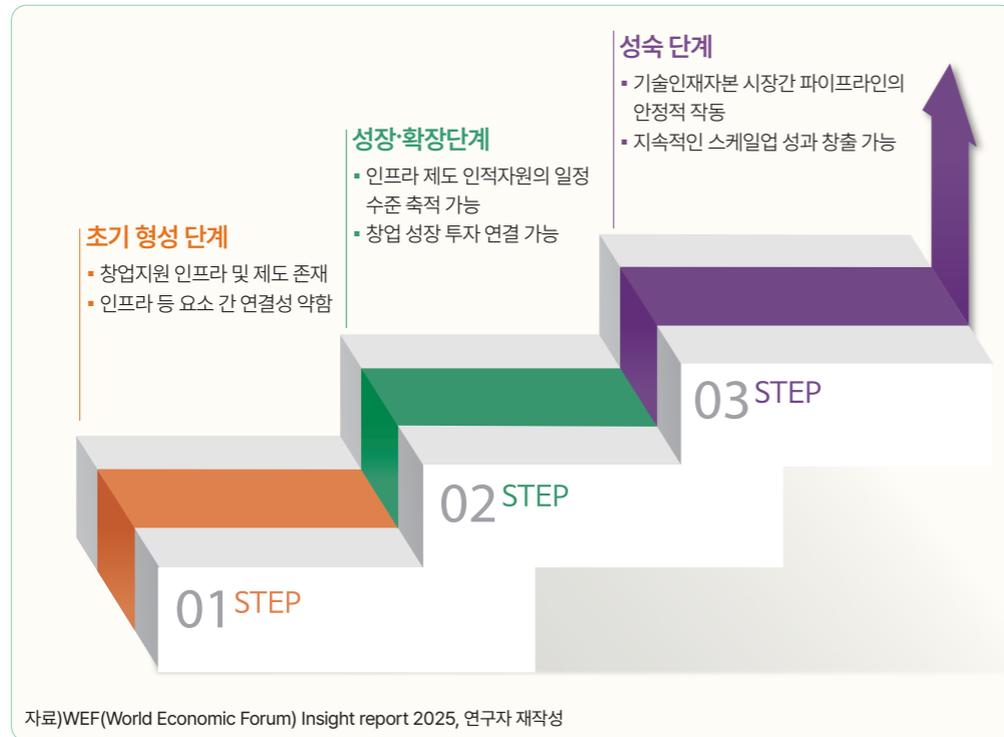
## II. 김해시 창업생태계 진단 및 타지역 사례 시사점

### 1. 김해시 창업생태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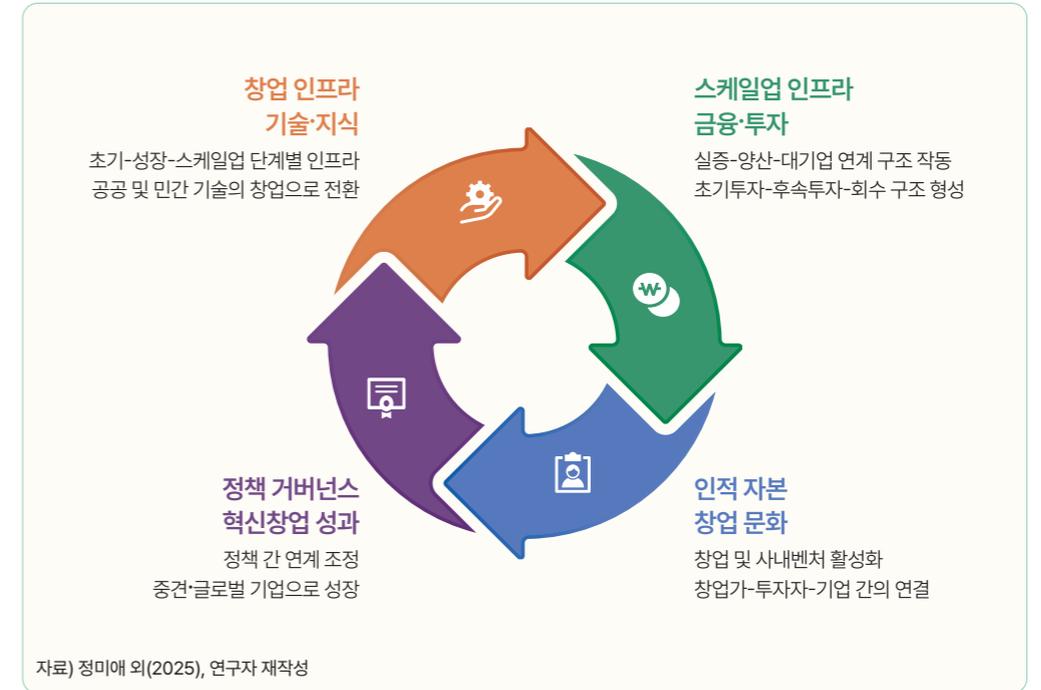
#### 지역 혁신창업생태계 지표 분석

- 김해시 창업생태계의 구조적 강점과 한계를 진단하기 위해서, WEF(2025)에서 제시한 수준별 정의를 준용하고 정미애 외(2025)의 지역 혁신창업생태계 지표를 축약 적용하였음
  - 지역 혁신창업생태계를 인적자본, 기술·지식, 창업인프라, 스케일업 인프라, 금융·투자, 정책지원, 창업문화, 혁신창업 성과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 체계로 정의하고 있음
  - 해당 지표 체계는 지역의 창업여건을 개별 정책이나 사업 단위가 아닌, 다차원적 요소간의 상호작용 체계로 분석하고 있으며, 초기 형성 단계, 성장·확장 단계, 성숙 단계의 개념으로 구성됨
  - 또한 창업지원 자원의 보유 여부를 평가하는 것 보다는, 창업-성장-확장 과정에서 각 요소가 어떻게 연결·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진단하는 방식임

<그림 2> 지역 혁신창업생태계 수준



<그림 3> 지역 혁신창업생태계 지표 및 성숙 단계 특징



-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정책자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창업생태계를 진단하였음
  - 진단 결과, 스케일업 인프라, 금융·투자, 창업문화, 혁신창업 성과 등 4개 지표는 초기 형성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적자본, 기술·지식, 창업인프라, 정책·거버넌스 등 4개 지표는 성장·확장 단계에 진입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4> 김해시 창업생태계 진단

지표	김해시 창업생태계		
	초기 형성	성장·확장	성숙
인적자본		○	제조·의생명 기반 인력은 풍부한 편이나 창업 전환은 제한적임
기술·지식		○	강소연구개발특구·의생명 기술 축적은 활성화된 반면, 창업 전환 성과는 제한적임
창업인프라		○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초기 인프라 보유함
스케일업 인프라	○		실증 이후 양산·대기업·글로벌 연계가 부족함
금융·투자	○		민간 VC 및 후속 투자 생태계는 부족함
정책·거버넌스		○	조례, 전담 기관 있지만 사업 단위로 분절됨
창업문화	○		교류는 존재하나 상시적 네트워크는 약함
혁신창업성과	○		초기 매출 성과는 있으나 스케일업 사례는 제한적임

자료) 연구자 작성

**김해시 창업생태계 강점 요인**

- 제조 기반과 기술창업 간 높은 정합성
  - 김해시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36.2%를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 도시임
  - 기계·금속·자동차부품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반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비교적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
  - 그러므로 기술창업 기업이 시제품 제작 및 검증을 하고, 지역 내 협력업체와 연계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음
  - 특히 창업지원 정책 측면에서 시제품 제작-검증-협력업체 연계는 서비스 및 플랫폼 중심 창업보다 제조 기반 기술창업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함
  - 그러므로 김해시의 초기 창업지원 정책은 제조 현장과 결합한 사업화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의생명 산업 집적과 강소연구개발특구 기반의 기술 자원
  - 김해 의생명 산업분야 기업은 319개사(2024년 기준)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가능성이 높음
  -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매출, 수출, 고용 측면에서 고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은 공공 연구개발(R&D) 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전환되고, 다시 시장 수요와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국가 10대 신산업 중 의생명·바이오 및 미래모빌리티 분야는 김해시 지역 전략산업의 방향성과 일치하여, 국비 사업 매칭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정책 지원의 제도적 기반 확보
  - 창업지원·청년창업 관련 조례에서는 예산확보, 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 근거 등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음
  - 전문기관 위탁 운영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음
  - 중앙정부 공모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김해시가 지역 단위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창업보육 공간·프로그램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음

**김해시 창업생태계 취약 요인**

- 스케일업 인프라의 구조적 공백
  - 창업지원 정책이 보육과 초기 사업화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조 스케일업(파일럿 생산·양산)과 시장 연계 인프라는 부족한 편임
  - 입주기업 수나 초기 매출과 같은 성과는 창출되고 있지만, 기업이 성장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이탈, 성장 정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 금융·투자 생태계의 취약성
  - 벤처 투자와 주요 투자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내 민간 투자 접근성과 후속 투자 유치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정책금융과 융자 수단은 일정 수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 네트워크, 성장 단계별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경로는 부족한 편임
- 사업 단위의 분절과 통합 조정 기능 부족
  - 투자자, 선도기업, 창업 기업 간을 연결하는 상시적 교류 채널(정기 포럼, IR, 기술 수요 매칭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 오픈이노베이션이나 투자 연계 사업이 이벤트성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사업 단위의 분절로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2. 타지역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대전과 대구의 사례는 김해시가 추진하는 기술창업 중심의 전략과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 제시함
  - 대전은 연구개발특구 기반의 기술이전-창업-투자 연계 모델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창업생태계를 구축한 사례이며, 대구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형 창업지원 체계로 전환한 사례임

### 1 대전: 연구개발특구 기반 딥테크 창업지원

-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대학·출연연의 기술과 인력을 중심으로 기술이전·사업화가 추진되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과 투자·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KAIST, UST, 충남대학교 등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다수의 출연연·국공립 연구 기관이 집적되어 있음. 기관에서 창출된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과 연구자 창업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는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담 부서인 창업진흥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명확함
  - 대전팁스타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전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지원기관에서 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 재정·투자 측면에서는 총 1조 원 규모의 지역 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를 통해 투자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음
- 기술과 인재를 강점으로 “기술이전-창업-투자-글로벌” 파이프라인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2 대구: 전략산업 전환형 창업지원 정책

- 5대 신산업(ABB·로봇·헬스케어·UAM·반도체)<sup>1)</sup>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재편하여 특정 산업군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DGIST, 경북대학교 등 주요 대학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테크노파크 등 성장 단계별 지원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며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 SW기업 집적단지(수성알파시티, 동대구벤처밸리 등),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1) 5대 신산업은 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를 핵심으로 하는 ABB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 디지털치료기와 전자약 등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중심의 미래 항공교통 산업, 그리고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을 통한 첨단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표 5> 타지역 창업지원 정책 사례 비교

구분	대전	대구
정책유형	연구개발특구 기반 딥테크 창업 모델	전략산업 지정 및 집중형 산업전환 모델
정책목표	공공 R&D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기술기반 창업 촉진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전환
핵심 정책 수단	기술이전, 연구자 창업, 딥테크 창업, 투자 연계	전략산업 지정, 집적단지 조성, 실증·특구 활용
중심 공간·거점	대덕연구개발특구	수성알파시티, 동대구벤처밸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주요 참여 주체	KAIST, UST, 충남대, 한밭대, 출연연·국공립 연구기관	DGIST, 경북대, 계명대, 산업별 전담 지원기관
창업지원 구조	기술이전 → 사업화 → 창업 → 투자·네트워크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구축	산업별 창업 → 성장 → 실증·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육성
정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창업 촉진 조례」 기반 종합계획, 시 전담부서(창업진흥과) 중심 운영	전략산업 중심 시 주도 정책 드라이브, 전담기관 협업 구조

자료)정미애 외(2025), 연구자 재작성

### 3 시사점

- 기술이전-창업-투자-성장 파이프라인의 체계적 설계
  - 김해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의생명 연구 인프라, 의료기기 기업 집적으로 기술·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
  -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사업에서 기술창업으로 전환, 투자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경로가 요구됨
  - 향후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 기술이전 성과를 출발점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유도하고, 투자 및 기업 성장 단계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함
- 창업지원정책의 컨트롤타워 확립
  - 김해시는 조례를 통해 창업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운영은 중앙정부 공모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는 정책 간 조정과 연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김해시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 정책 기획·조정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략산업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 수립
  - 의생명·의료기기, 미래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전략산업의 방향성은 비교적 명확하나, 창업지원 정책은 분산되는 경향이 있음
  -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인프라, 특화 창업지원 프로그램, 성장 단계별 지원 수단을 패키지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III.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 과제와 제언

#### 산업 연계형 스케일업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 김해시 창업지원 정책은 공간·보육·초기 사업화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의 초점을 초기 창업에서 기술사업화 이후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김해시 전략산업인 의생명·의료기기와 미래자동차 등의 분야는 기술 검증 이후 시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발휘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 창업정책 설계에 있어 제조·전략산업과 연계된 스케일업 중심 정책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제조·전략산업 연계, 실증·양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증 이후 양산과 대기업 협업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연결에 집중해야 함
  - 김해시는 산업단지, 협력 중소기업, 선도 제조기업과 연계를 통한 파일럿 생산, 시범 양산, 공정 검증까지 포함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특화 분야에서의 지원체계를 통해 실증 이후 공공·민간 수요처 매칭을 확대하는 지원 전략이 요구됨

#### 창업 협력 체계 구축

- 창업-투자-시장 접근을 초광역 단위의 '창업경제권' 관점에서 부산·창원과 연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부산은 금융·투자·글로벌 네트워크, 창원은 제조·대기업·산업 인프라를 연계하여 스케일업, 투자·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김해시 단독 펀드 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남·부산권 펀드 및 민간 VC와의 공동 투자 구조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
  - 정기 IR, 민간 VC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정책 성과 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창업 인재 및 창업문화 기반 확충

-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창업 인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임
  - 특히 의료기기·제조 분야는 규제, 인증, 공정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이 요구되므로, 대학·연구기관·기업과 연계한 현장형 창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함
- 네트워크·커뮤니티 중심의 창업문화 조성이 중요함
  - 창업가, 전문가,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포럼, 밋업, 기술 교류회 등을 통해 상시적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구됨
- 공동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창업가-기업-연구기관 간 협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기적 성과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됨

### 참고문헌

정미애 외(2025), 「지역 혁신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STEPI Insight vol 33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미애 외(2024), 「혁신창업 및 기업가정신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10차년도)」, 정책연구 13-0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2025), 「2025년 주요업무계획」.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12.31.), 「'25년 정부·지자체 3조 2,940억원 창업지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main>

김해시보 제1082호 (2025.2.11.), 「강소특구 2단계 사업 본격 추진한다」 <https://www.gimhae.go.kr/00001.web?amode=view&sno=1065&cno=25877&syar=2025> (검색일: 2025.12.3)

뉴스시스(2025.2.24.),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2년 연속 최우수기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6358?utm\\_source=chatgpt.com](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4_0003076358?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12.2)

전자신문(2025.11.26.),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2025 지역창업특화지원센터 평가서 2개 우수센터 선정」 <https://www.etnews.com/20251126000392> (검색일: 2025.12.2.)

한국문화경제신문(2025.3.18.), 「김해시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24년 창업진흥원 최종평가 최우수기관(S등급)선정」 <https://www.kcenews.com/13621> (검색일: 2025.12.3.)

World Economic Forum(2025), 「Innovation Ecosystems: A Toolkit of Principles and Best Practice」, Insight Report 2025

## 김해정책 BRIEF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김재원

**집필자** 강길주 김해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발행처** 김해연구원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2층

**연락처** (055) 344-7700

**편집** 디자인 북

- 김해연구원 집필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사, 전재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간행물의 내용은 전적으로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김해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